
2013년 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2013년 8월 20일



경 상 북 도 의 회

공무국외연수 개요

1. 여 행 국 :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2. 여행목적 : 의정현안 사항과 연계한 테마가 있는 선진행정 체험
연수로 도민생활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과제
발굴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
3. 여행기간 : 2013. 7. 15(월) ~ 7. 23(화)
4. 보고서 작성자 : 연수단장 한혜련
5. 여행자 인적사항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행정보건위원회	한 혜 련	단 장
농수산위원회	강 영 석	간 사
기획경제위원회	김 명 호	
기획경제위원회	김 봉 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 창 숙	
기획경제위원회	박 진 현	
교육위원회	박 태 환	
건설소방위원회	윤 성 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 상 용	
문화환경위원회	이 상 효	
건설소방위원회	장 두 욱	
건설소방위원회	장 영 석	
교육위원회	최 우 섭	
교육위원회	추 재 천	
농수산위원회	한 창 화	
기획경제전문위원	김 영 수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실 연구관	장 영 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주무관	정 창 호	"

목 차

I. 연수개요	1
1. 개 요	1
2. 연수의원 명단	2
3. 연수일정	3
II. 동유럽국가 연수의 의의	4
III. 연수 주요내용	5
1.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육성방안	5
2.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지역성장 및 활성화 방안.....	9
3.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호실태 및 관광활성화 사례연구.....	13
IV. 연수를 마치며	28

I. 연수개요

1. 개 요

(1) 목 적

- 연수국별 테마가 있는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적인 안목 제고 및 새로운 정책을 도정에 접목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 정책과제에 대한 사전 연구활동 및 연수국 방문기관 선정으로 해외연수의 내실화 도모 및 연수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

(2) 연수기간 : 2013. 7. 15(월) ~ 7. 23(화) / 7박 9일

(3) 연수지역 : 4개국

- 폴란드 : 오슈비엔침, 비엘리츠키
- 헝가리 : 부다페스트
- 오스트리아 : 비엔나, 잘츠부르크
- 체코 : 체스키크롬로프, 프라하

(4) 연수내용

- 연수과제 : 문화와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창조경제 실현 방안
- 주요테마
 -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안
 - 국제기구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존실태 및 관광활성화 사례 연구

2. 연수의원 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계		15명	
단 장	도의회 부의장	한 혜 련	
간 사	농수산위원회 위원	강 영 석	
단 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김 명 호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김 봉 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 창 숙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박 진 현	
"	교육위원회 위원	박 태 환	
"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윤 성 규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 상 용	
"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이 상 효	
"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장 두 욱	
"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장 영 석	
"	교육위원회 위원	최 우 섭	
"	교육위원회 위원	추 재 천	
"	농수산위원회 위원	한 창 화	
의회사무처	기획경제전문위원	김 영 수	
"	입법정책관실 연구관	장 영 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주무관	정 창 호	

3. 연수일정

날짜	방문도시	교통편	시간	일 정
7. 15(월) (1일차)		항공	12:45 16:50 19:30	■ 인천국제공항 출발 ■ 체코 프라하국제공항 도착 ■ 체코 브로노 도착(버스)
7. 16(화) (2일차)	오슈비엥침 (폴란드)	전용차량	오 전 오 후	■ 체코 브로노 → 폴란드 오슈비엥침 ■ 아우슈비츠 유대인수용소 - 유네스코 문화유산, 비극의 역사현장 방문
7. 17(수) (3일차)	비엘리츠키아 (폴란드)	전용차량	오 전 오 후	■ 비엘리츠키아 소금광산사무소 -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방안 ■ 체코 비엘리츠키아 → 슬로바키아 타트라
7. 18(목) (4일차)	부다페스트 (헝가리)	전용차량	오 전 오 후	■ 슬로바키아 타트라 → 헝가리 부다페스트 ■ 헝가리 바이오매스 발전소 -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추진현황 등 청취 ■ 다뉴브강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 주변 관광레저 활성화 방안 모색
7. 19(금) (5일차)	비엔나 (오스트리아)	전용차량	오 전 오 후	■ 헝가리 부다페스트 → 오스트리아 비엔나 ■ 오스트리아 신도시 우노시티 - 다수의 국제기구 입주 제3의 UN 도시개발 사례
7. 20(토) (6일차)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전용차량	전일	■ 자연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개발 - 미라벨 정원, 잘츠부르크성 등 벤치마킹으로 우리도의 문화자원 활용방안 모색
7. 21(일) (7일차)	체스키크롬로프 (체코)	전용차량	오 전 오 후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 체코 체스키크롬로프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실태 - 구시가지 광장, 체스키크롬로프 성 등 벤치마킹으로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사례
7. 22(월) (8일차)	프라하 (체코)	전용차량	오 전 오 후 18:30	■ 체코 체스키크롬로프 → 체코 프라하 ■ 신규 조화를 이룬 도시행정 -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도시개발로 전통적인 건축물의 보존 및 도시의 이미지의 제고 사례 ■ 체코 프라하 출발(항공)
7. 23(화) (9일차)		항공	11:20	■ 인천국제공항 도착

II. 동유럽국가 연수의 의의

○ EU(European Union)가 들어서면서 유럽국가들간에는 국경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음. 그에 따라 투자의 기준은 주요핵심 시장(市場)으로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

○ 이러한 관점에서 EU내 최대 경제권인 독일과 인접하고 물류 인프라와 노동력의 질이 뛰어난 동유럽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음. 실제 이들 국가의 수출 중 70~80%는 서유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다름아닌 비제그라드(Visegrad)그룹으로 불려지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의 4개국임.

○ 비제그라드 그룹은 1991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가 헝가리의 비제그라드에서 회원국간 협력증진과 EU 및 나토 가입을 목적으로 결성된데서 비롯됨. 그 이후 체코슬로바키아가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면서 회원국은 4개국이 되었고 현재 비제그라드 그룹은 EU 및 나토에 가입한 이후에는 지역 안보 협력체로 기능하고 있음. 아울러 이들 국가는 2009년까지 4%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유로존 위기를 겪고 있는 서유럽 국가의 보완시장으로도 주목받고 있음.

○ 이와 같이 공산주의로부터 해방된지 20년 남짓된 중부유럽이 EU가입을 발판으로 유럽 진출의 새로운 베이스캠프로 떠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비제그라드(Visegrad) 그룹으로 불리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동유럽 4개국은 유로존 위기로 어려운 유럽시장 공략을 공략해야 하는 한국에게도 기회라고 할 것임.

○ 따라서 이들 비제그라드를 중심으로 하는 동유럽국가들의 역사 및 사회문화, 가치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사회경제적 정책과 제도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경제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Ⅲ. 연수 주요내용

1.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육성방안

- 헝가리 바이오매스 발전현황 및 시설방문 -

○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적 흐름과 같이 태양광, 풍력, 파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가 시행되고 있기도 함. 그러나 발전회사의 대응은 더디고, 정부의 유인책도 뚜렷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고비용인데다가 일부 시설은 지역 주민의 반발까지 겹쳐 자발적 사업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그런 가운데 헝가리는 전통적으로 농업이 주요 산업중 하나였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에너지(Biomass Power) 개발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바이오매스 발전소란 열분해한 식물이나 미생물을 에너지 원으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이르는데 헝가리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음. 현재까지 헝가리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부분을 바이오매스가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 추세대로면 2020년 전체 에너지 수요의 20%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여짐.

○ 현재 헝가리 신재생에너지는 국가개발부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와 에너지사무국(MEH, Hungarian Energy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REAP(Hungary's Renewable Energy Utilization Action Plan 2010-2020)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액션플랜을 기반으로 모든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분담률을 13% 까지 늘릴 의무가 있으나 헝가리 정부는 14.6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분담률 3.6%를 2007년에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며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80% 이상에 바이오매스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회사가 바이오매스 발전에 치중하고 있기도 하지만 유기물을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화석연료처럼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뒤따라 정책의 추진이 용이하지 않음. 고비용과 장시간 설비가 필요한 태양광이나 풍력 활용을 피해가려는 임시방편 성격이 짙음. 따라서 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위한 헝가리의 정책현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 및 열처리발전소를 방문하여 신재생에너지 추진현황을 설명을 듣고 처리시설 현황 등을 둘러보았음. 쓰레기 소각장에 열처리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생산된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에너지 비용감소와 소각장 전력비를 절감하는데 있음. 쓰레기 소각을 통해 발생하는 폐열을 전기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의 쓰레기소각장 및 열처리발전시설 현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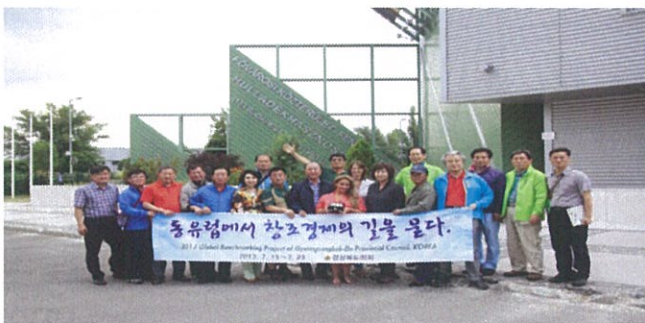
<Hulladékhasznosító Mű, 1151 Budapest, XV. kerület, Hungary 전경>

○ 한편 이 회사는 부다페스트 30,000개 가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기업으로 헝가리 최대 규모의 폐기물 관리 회사이며 수도권 폐기물 매립 작업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헝가리 유일의 폐기물 화력 발전소 및 엔지니어링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음. 또한 매립지

및 16개 주거 정원 폐기물 수집을 하고 있으며 겨울과 여름에 25개 이상의 백만 평방미터의 포장도로 네트워크의 기초적인 공간, 청소 공공 단계 73개 지하도의 교량, 육교 및 기타 엔지니어링 시설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함께 깨끗한 부다페스트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음.

○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헝가리에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은 유리한 조건임은 틀림없다고 할 것임. 실제 2010년 기준 설치규모는 378MW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가동률이 1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은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음. 현재 헝가리의 FIT는 2003년에 도입된 KAT 제도에 따르고 있으나 앞으로는 METAR라는 신규 프레임워크에 따를 예정임. METAR 프레임워크는 2013년 1월부터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제도가 정비된 상황은 아니라고 함.

○ 또한 정부, 시정부, 민간 등에서 프로젝트 발주가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 신규 프로젝트가 극히 드물다는 점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담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제도정비와 신규 프로젝트 발주는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쓰레기소각장및열처리발전소>



< 쓰레기소각장 시설물 견학>

○ 그러나 최근 우리기업들의 북미, 동남아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

트 참여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헝가리는 아직 신재생에너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국내 진출환경만 개선된다면 진입장벽은 타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고 신재생에너지, 특히 바이오매스 발전소 설비와 운영관련 진출을 검토해볼 필요가 높다고 할 것임.

○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발전을 하기 위한 원료는 주로 목재, 곡물찌꺼기, 쓰레기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각 원료 중에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소각시 발생하는 공기오염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음. 또한 재료원 확보를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가 활성화되지 않아 부산물을 수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함

○ 아울러 소각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야기됨은 물론 소각으로 인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 방안이 시급해 보임.

2.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지역성장 및 활성화방안

○ 지난해 우리나라가 유치하는데 성공한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은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B)으로 통하고 있음. 그에 따라 인천사무국에 상주하는 직원만 해도 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GCF가 자리를 잡으면 경제적 외부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 유엔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기술훈련센터(UN APCICT),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기구(UN ISDR) 동북아시아사무소·도시방재연수원, 유엔 국제상거래위원회(UN 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센터 등 유엔 기구 4곳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하면서 인천 송도지역은 명실상부한 '유엔공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유엔의 아시아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MICE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그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1979년부터 유엔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건축된 비엔나 인터내셔널 센터인 오스트리아 우노시티를 방문하고 그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임.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빈은 오스트리아 연방공화국의 수도이자 9개 주 중 가장 작은 주이지만 역사, 지정학, 경제 투자 가치 등 모든 면에서 동구권의 중심지임. 특히 지리적으로 유럽 중심부에 위치해 유엔본부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많은 국제기관이 자리 잡고 있음. 국제컨벤션협회 조사에 따르면 빈은 지난 5년간 세계에서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도시로 기록된 바 있음.

○ 카이저뮐렌에 도착하면 왼쪽으로 높이 솟아 있는 현대식 건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비엔나 인터내셔널 센터'(Vienna International Centre)라고 불리는 UNO-City임. 오스트리아는 전승국의 통치에서 해방시키는 평화조약이 맺어지자 영구중립국을 선언하였고 이를 계기로 1955년 유엔에 가입하였음. 그로부터 2년후인 1957년, UN산하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비엔나에 본부를 정하였고 이어 1967년에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옮겨왔음. 아울러 석유수출기구(OPEC)도 비엔나로 본부를 옮겨 왔음. 이후 다수의 국제기구가 비엔나를 속속 찾아왔는데 이로써 비엔나는 뉴욕, 제네바에 이어 제3의 UN 도시가 되었음.

○ 도나우 강변에 위치한 우노시티(Uno City)는 뉴욕, 제네바에 이어 세번째의 UN 도시로 1974년 설계에 들어가 1979년 완공되었음. 현재 시티안에는 도시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교육, 생활 편의시설들이 위치해 있음.

○ 우노 시티는 비엔나 인터내셔널 센터(VIC)라고도 불리우는데 각종 유엔 기구들이 입주하여 있는 거대한 단지임. 바그라머슈트라쎄(Wagramerstrasse) 5번지의 VIC는 오스트리아 건축가인 요한 슈타버(Johann Staber)가 설계했다고 하는데 1973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1979년에 완성했음.

○ 비엔나에 국제기구 건물을 마련해 주자는 아이디어는 당시 수상이던 브루노 크라이스키(Bruno Kreisky)의 것이었다고 함. 그래서 VIC의 원통형 콘퍼런스 건물에서 카페테리아로 가는 복도에 크라이스키 수상의 유화 초상화가 걸려 있음. 비엔나 시는 매년 단 1셸링(당시 화폐)의 임대료를 받고 이 건물들을 UN에 영구 임대하였음. VIC에는 컨퍼런스(C)빌딩 이외에 6개의 빌딩이 Y 형태로 배치되어있음. 총 면적은 23만 평방미터이며 가장 높은 건물은 A 빌딩으로서 120미터 높이의 28층 건물임. VIC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약5천명이나 이르는데 UNO-City에는 54개의 승강기가 있고 2만4천개의 유리창이 있으며 1천개의 화장실이 있다고 함. 하지만 레스토랑과 카페테리아가 다만 하나씩 있을 뿐이다. UNO City에는 대형 콤포사리(Commissary)가 있어서 면세품을 구매할수 있음.

○ 즉, 비엔나 인터내셔널 센터인 우노시티는 1979년 유엔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우노시티 건설에는 약 10억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오스트리아 정부는 정책적으로 UN에 거의 무료로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는 바. 그러한 정책이 많은 유엔 기구를 비엔나로 불러들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오스트리아 비엔나 인터내셔널 센터 입구>

○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도 국제기구의 유치는 군사력 강화보다도 더 우세한 효과를 가질 것을 예상한 것이었음. 현재 우노시티 안에는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와 교육, 생활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음.



<우노시티 방문현장>

○ 그러나 국제기구 유치에 있어 유치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려면 마구잡이식 국제기구 유치가 아니라 국제기구유치에 따른 파급효과와 영향 등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즉, 국제기구유치에 따른 '매출 변화 예상치', '인력 활용 현황과 예상 인력 수요', '정부·지자체의 지원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경제 파급 효과와 고용 영향을 알아보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아울러 세금만 낭비하는 일부 국제행사의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제행사에 대해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정책성 등을 계량화하여 엄정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유네스코문화유산 보존실태 및 관광활성화 사례 연구

○ 최근 관광의 주요한 흐름 중의 하나는 관광객들의 높은 수준과 문화수준의 증가로 인하여 관광목적지의 문화적·고유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형태로 크게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관광이라 함은 단순 관광지를 돌아보는 형태가 아니고 그 나라 또는 도시의 문화를 체험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에 따라 관광객은 가장 먼저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대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관광객을 유인하는 기초적인 관광상품으로 제시되며 관광상품은 관광기반시설이 될 수도 있고 국가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즉, 세계문화유산이 자원속성이 될 수도 있다 할 것임. 즉,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성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관광경험에 있어서 고유한 흡인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동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등의 경우와 같이 중소형 국토단위 속에서 뛰어난 문화적 가치가 내재한 동유럽의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보존실태 및 관광활성화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임.

동유럽의 세계문화유산 분류

국가명	주요유산	세계문화유산 보유수
오스트리아 (AUSTRIA)	· 쾨브룬 궁전과 정원(Palace and Gardens of Schönbrunn) 1996 · 잘츠부르크시 역사지구(Historic Centre of the City of Salzburg) 1996 · 할슈타트-닥슈타인/잘츠 카머гут 문화경관 (Hallstatt-Dachstein/ Salzkammergut Cultural Landscape) 1997 · 켄머링 철도(Semmering Railway) 1998 · 그라츠시 역사지구(City of Graz-Historic Centre) 1999 · 와차우 문화경관(Wachau Cultural Landscape) 2000 · 빈 역사지구(Historic Centre of Vienna) 2001 · 페르퇴/노지들레르씨(Fertő/ Neusiedlersee Cultural Landscape) 2001 · 알프스 주변의 선사시대 호상가옥(Prehistoric Pile dwellings around the Alps) 2011	총 9건 협약가입 19 79. 6. 8
헝가리 (HUNGARY)	· 홀로 케 전통마을(Old Village of Hollókő and its Surroundings) 1987 · 부다페스트 도나우 강변과 부다성, 안드레시 애비뉴(Budapest, including the Banks of the Danube, the Buda Castle Quarter and Andrassy Avenue) 1987 · 아그텔레크 동굴과 슬로바크의 카르스트 지형(Caves of Aggtelek Karst and Slovak Karst) 1995 · 파논할마 베네딕트 천년 왕국 수도원과 자연환경(Millenary Benedictine Abbey of Pannonhalma and its Natural Environment) 1996 · 호르토바기 국립공원(Hortobágy National Park-the Puszta) 1999 · 소피아나 초기기독교묘지(Early Christian Necropolis of Pécs) 2000 · 페르퇴/노지들레르씨(Fertő / Neusiedlersee Cultural Landscape) 2001 · 카지와인지역 문화유산(Tokaj Wine Region Historic Cultural Landscape) 2002	총 8건 협약가입 1984년 9월 12일
폴란드 (POLAND)	· 크라코프 역사지구(Cracow's Historic Centre) 1978 ·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Auschwitz Birkenau) 1979 · 바르샤바 역사 지구(Historic Centre of Warsaw) 1980 · 자모시치 옛 시가지(Old City of Zamość) 1992 · 말보크 독일기사단성(Castle of the Teutonic Order in Malbork) 1997	총 12건 협약가입 : 1987년 3월 4일

	· 토론 중세마을(Medieval Town of Toruń) 1997 · 칼바리아 제브지도프스카, 마니에리스모 건축과 공원 단지 및 순례 공원 (Kalwaria Zebrzydowska: the Mannerist Architectural and Park Landscape Complex and Pilgrimage Park) 1999 · 야보르와 시비드니차의 자유교회 Churches of Peace in Jawor and Świdnica) 2001 · 남부 리틀 폴란드의 목조 교회(Wooden Churches of Southern Little Poland) 2003 · 브로츠와프의 백년 홀(Centennial Hall in Wrocław) 2006 ·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지역의 목조 체르크바(Wooden Tserkvas of the Carpathian Region in Poland and Ukraine) 2013 · 비엘리치카와 보흐니아 왕실 소금광산(Wieliczka and Bochnia Royal Salt Mines) 1978	
체코 (czech)	· 체스키 크루믈로프 역사센터(Historic Centre of Český Krumlov) 1992 · 텔치 역사센터(Historic Centre of Telč) 1992 · 프라하 역사지구(Historic Centre of Prague) 1992 · 젤레나 호라의 성요한 순례교회(Pilgrimage Church of St John of Nepomuk at Zelená Hora) 1994 · 쿠트나 호라 역사타운(Kutná Hora: Historical Town Centre with the Church of StBarbara & the Cathedral of Our Lady at Sedlec) 1995 · 레드니스-발티스 문화경관(Lednice-Valtice Cultural Landscape) 1996 · 크로메리츠의 정원과 성(Gardens and Castle at Kroměříž) 1998 · 홀라소비스역사마을보존지구(Holašovice Historical Village Reservation 1998) · 리토미슬 성(Litomyšl Castle) 1999 · 올로모크의 삼위일체 석주(Holy Trinity Column in Olomouc) 2000 · 브르노지역의 투겐하트 별장(Tugendhat Villa in Brno) 2001 · 트레빅의 유대인지구와 성 프로코피오 교회(Jewish Quarter and St Procopius' Basilica in Třebíč) 2003	총 12건 협약가입 1980년 2월 20일

(1) 아우슈비츠 유대인수용소(폴란드)

○ 아우슈비츠(Auschwitz)는 독일식 명칭이고, 폴란드 사람들은 오슈비엥침(Oświęcim)으로 부르고 있음.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제1수용소와 그곳에서 3km가량 떨어져 있는 제2수용소로 나뉘어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대인 수용시설을 활용해 만든 박물관은 옛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음.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Konzentrationslager Auschwitz) 입구>

○ 정문을 통과해 200m를 이동하면 제1수용소 입구가 나오는데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ARBEIT MACHT FREI)라는 문구의 기만적인 독일어 문구도 그대로 붙어 있음.

○ ARBEIT라는 단어의 B가 위쪽이 더 뚱뚱한 것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항거의 표시로 만들었다고 함. 또한 수용소에 걸린 증명사진은 한경같이 턱을 들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치를 깔본다는 의미의 반항적 포즈라고 함.

○ 특히 수백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을 둘러보면 수많은 유대인과 정치범들이 학대와 굶주림 속에서 강제노동하다 생을 마감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당시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안경, 신발, 사진 등이 형클어진 채 전시돼 있으며 머리카락, 칫솔, 아기 우유병 등이

남아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고 있음. 수용소 남쪽 끝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했던 장소인데 지하에 건설한 가스실과 시체 소각장은 인간의 잔악성에 대한 좌절을 느끼게 만듦. 곳곳에는 숨을 거둔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한 꽃송이만이 아련하게 쌓여 있음.

○ 제2수용소인 브제진카(비르케나우) 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300동의 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죽음을 상징하는 굴뚝과 막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벽돌이 텅구는 황량한 풍경임.

○ 이에 폴란드 정부는 자국 청소년들에게 아우슈비츠를 의무적으로 방문토록 해 슬픈 역사를 곱씹고 있다고 함. 현장에 서면, 그 슬픔을 공유하는 데는 민족과 나라의 구별은 따로 없으며 우리나라에도 청소년들에게 서대문형무소, 거제도포로수용소 등을 의무적으로 방문토록 하여 가슴아픈 역사를 느낄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아우슈비치 수용소 입구>



< 아우슈비치 유대인수용소 사형장>

○ 1970년 폴란드의 나치 희생자 위령탑에서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는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는데 이는 전범국가 독일이 피문은 손을 씻고 유럽의 이웃으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계기였음. 특히 올해 히틀러 집권 80주년을 맞아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나치 희생자들과 국가들에 진심어린 사죄를 했는데 이같은 독일의 반성은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돼왔음.

○ 이에 비해 같은 전범국가이면서도 과거에 저지른 잘못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더욱 수치를 느끼는 듯한 최근의 일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음. 그러나 일본은 지난 1993년 위안부 강제 동원을 사과한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로 일본은 식민 지배와 책임을 처음 인정한 바 있음.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2차 대전 전범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역주행이 시작되었는데 독일의 반성에 다시 한번 진정한 참회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임.

(2) 비엘리츠키 소금광산(폴란드)

○ 소금광산 비엘리츠키의 깊은 어둠은 아우슈비츠와는 또 다르게 나타나는데 처절했을 노동의 현장인 지하 광산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음.

○ 비엘리츠키 동굴의 길이는 총 300km나 되고 역사도 700년이 넘어서는데 1250년대부터 최근까지 작업이 계속된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음.

○ 비엘리츠키에 얽힌 얘기는 전설처럼 이어지는데 한번 광산에 들어온 말은 평생을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땅속에 머물렀다고 하고, 한때 폴란드 왕궁 전체 수입의 3분의 1이 이 소금광산에서 나왔다고도 함. 광산 노동자들은 지하에서 오랜 세월 일하고 묵으며 암염으로 조각된 예술품들을 만들어 냈는데 소금광산에만 3,000여 개의 방이 있는데 그 중 20여 개의 독특한 방들이 일반에 공개 중임.

○ 지하 110m에 위치해 있는 킹가 성당(Chapel of Saint Kinga)은 소금광산 여행의 백미다. 20세기초 30여 년간 암염으로 만든 동굴에는 역대 왕과 상들리에 조각들이 찬란하게 재현돼 있는데 광산에는 작은 연못도 있고 유럽에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우체국도 있음.

○ 소금광산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곳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소금광석 예술품들 때문에 매년 120만명의 관광객들이 소금광산을 방문한다고 함. 특히 거대한 지하예배당은 지하 110m에 있는데 이곳에서 예배당을 만들면서 지상으로 보낸 소금만 2만여톤이 된다고 함. 예배당 벽에는 최후의 만찬을 비롯한 조각작품들이 많음.



< 소금광산 입장전 >



< 소금광산내 지하예배당 >

(3) 부다페스트의 도나우 강변과 부다왕궁 일원(헝가리)

1) 역사박물관 - 부다왕궁

○ 부다페스트는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오른 매력적인 도시임. 다뉴브 강 동쪽 부다 지역은 13세기 이래 헝가리 왕이 거주하던 곳이고, 페스트 지역은 중세 이래 상업과 예술의 도시로 성장해왔음.



○ 19세기 중엽까지 부다와 페스트, 오부다 등 각기 독립적으로 발전하던 도시들은 1873년 가장 위대한 헝가리인으로 불리는 세체니

이스트반 백작에 의해 하나의 도시로 통합되어 오늘날의 부다페스트가 되었는데 높은 언덕이 이어진 부다 지구에는 중세 헝가리 왕들이 거주했던 부다 왕궁이 있음.

○ 13세기의 몽고 침입으로 피난 온 벨라 4세가 방어를 위해 부다의 언덕에 최초로 지은 네오바로크 양식의 부다 왕궁은 부다페스트의 상징임.

○ 부다 왕궁은 13세기부터 외세의 침략에 의한 파괴와 복원을 되풀이하면서 17세기가 되어서야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2차 대전 중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1960년대가 되어서야 복원이 완료돼 오늘날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음.

○ 부다 왕궁은 13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아치형의 창문과 아라베스크 무늬가 새겨진 돌기둥이 화려한데 현재는 헝가리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2) 영웅광장

- 헝가리의 영웅광장은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1896년에 세워진 기념비가 있는 광장임. 광장중앙에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36m 높이의 밀레니엄 기둥 위에 서있는데 기둥 밑에는 헝가리를 세운 마자르족의 부족장 6명의 기마상이 있음. 기둥 양 옆에는 위대한 헝가리의 지도자 14명의 동상들이 쭉 늘어서 있음.



○ 1896년에 세워진 것임에도 그 규모가 엄청나며 역사적 현장을 잘 보존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혜가 돋보임.

○ 이처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는 헝가리 중앙부를 관통하는 다뉴브 강을 끼고 펼쳐진 중부 유럽 최대의 도시임. 다뉴브 강을 중심으로 언덕이라는 의미의 '부다'와 평지라는 의미의 '페스트' 지역으로 구분되어 발달한 도시로 13세기 이래로 헝가리의 왕들이 거주했던 부다 왕궁을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기념이 되는 건축물들이 많은 지역임.

3) 헝가리 호국현장 - 어부의 요새

○ 어부의 요새는 네오 로마네스크와 네오 고딕 양식이 절묘하게 혼재된 건물로 뾰족한 고깔 모양의 일곱개의 타워로 1902년에 건립되었고 각 타워들은 수천년 전에 나라를 세운 일곱개의 마자르 족을 상징하고 있음.



○ 색의 화려한 성벽과 마차시교회까지 뻗어있는 계단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도록 아름답음.

○ 헝가리 애국정신의 한 상징으로 19세기 시민군이 왕궁을 지키고 있을 때 도나우강의 어부들이 강을 건너 기습하는 적을 막기 위해 이 요새를 방어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음.

4) 종교양식의 변천 보존현장 - 마차시 사원

○ 13세기 중엽에 세워진 마차시교회는 헝가리의 가장 위대했던

왕인 마차시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함. 역대 왕들의 대관식이 거행되어 대관식 교회라고도 부르고 있음.



○ 16세기에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슬람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17세기에는 다시 가톨릭 교회가 되었고, 18세기에 바로크 양식으로 재건축되었기 때문에 이슬람적인 분위기와 카톨릭적인

분위기가 혼재되어 묘한 매력을 풍기고 있음.

5) 부다페스트의 야경 - 세체니 다리



○ 부다페스트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다리로 세체니 이슈트반 백작의 아이디어로 시작하여 스코틀랜드인 클라크 아담에 의해 건설되었음. “세체니”라는 이름은 이 다리에 공헌한 세체니 백작을 일컫기도 하지만 밤을 밝히는 전구의 모습이 마치 사슬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졌음.

○ 다리 난간에는 허가 없다고 전해지는 사자 상이 있음. 지금은 부다페스트의 야경에서 빼놓을 없는 아름다운 다리로 자리하고 있음.

(4) 잘츠부르크시 역사지구 일원(오스트리아)

○ 쾰츨부르크는 가톨릭 문화의 중심지였고 바로크 문화가 꽃핀 곳이지만 모차르트의 고향으로 더욱 유명함. 도시의 많은 상점들이 그의 이름을 사용하고 판매되는 모차르트 음악제를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 몇 백년간 이어진 문화상품의 힘이 느껴지기도 함

○ 각지에서 판매되는 모차르트 쿠크렌 초콜릿의 원산지이며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무대가 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쾰츨부르크는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음. 쾰츨부르크시는 1인당 GNP가 7만불에 해당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뽑혔으며 오페라 하우스 관광수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 오스트리아 정원 - 미라벨 정원

○ 쾰츨부르크 신시가지의 미라벨 궁전 앞에 펼쳐져 있는 정원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여 조성하였으며, 분수와 연못, 대리석 조각물과 많은 꽃들로 잘 장식되어 있음.

○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에서 여주인공 마리아가 아이들과 '도레미 송'을 불렀던 곳으로 더욱 널리 알려졌으며, 멀리 보이는 호헨쾰츨부르크성(城)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음.

2) 쾰츨부르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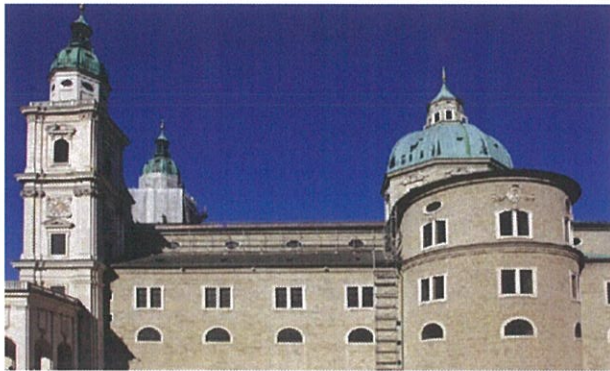
○ 1077년 게브하르트 대주교가 창건한 중세 고성(古城)으로 구시가지 남쪽의 뫼히스베르크 언덕에 우뚝 서 있어 도시 어디에서나 잘 보이며 쾰츨부르크의 상징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 11세기 후반 로마 교황과 독일 황제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을 즈음,



교황측에서 남부 독일 제후가 공격해올 것에 대비하여 건설하였으며, 가톨릭에 관련된 여러 성과 교회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3) 클래식 문화현장 - 쾰츠부르크 대성당



○ 유럽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17세기에 세워져 독일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전파에 큰 역할을 했던 역사적인 성당으로 모차르트가 이곳에서 영세를 받았고, 어린시절 미사에 참석하여 파이프 오르간

과 피아노로 연주하기도 하는 등 모차르트와는 인연이 깊은 곳으로 알려져 있음.

4) 잘쯔캄머гут 호수

○ 잘쯔캄머гут은 소금의 영지라는 뜻으로 곳곳에 산과 호수가 흩어져있는 이 지방은 잠자는 듯한 산간 마을로 오늘날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인기 높은 관광지중 하나임. 또한 이곳은 사운드 오브 뮤직에 등장하는 샤프베르크 산으로 올라가는 증기 등산 열차도 탈수 있는 걸로 유명함.



(5) 체스키 크롬로프 및 프라하 역사지구 (체코)

1) 구시가지 광장

○ 대표적인 건조물로는 프라슈나 브라나를 들 수 있으며, 광장 중



양에는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인 요하네스 후스의상이 있고, 구시청사 맞은편에는 고딕양식의 틴 교회가 위치하고 있음.

○ 틴 교회옆에는 초창기의 바로크 양식의 킨스키 궁전이 있는데 18C에 지은 킨스

키백작의 성곽으로 지금은 국립미술관 판화부가 자리하고 있음.

○ 구시가지 광장은 고딕과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의 건물 등 광장 주위로 서 있는 프라하의 심장 같은 곳이기도 함. 틴성당, 구시청사와 천문시계, 얀 후스 동상 등이 있음. 특히 야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음.

2) 체스키 크롬로프 역사지구

○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200여 km 떨어진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근처에 체스키 크롬로프가 있는데 S자로 완만하게 흐르는 블타바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도시로 붉은 지붕과 둥근 탑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

○ 체코가 공산 국가였던 시절에는 그

저 낙후된 도시에 불과했던 체스키 크롬로프는 1992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음.

○ 300여 개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 유적으로 등록되었으니 도시 전체가 유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13세기 남 보헤미아의 비테크가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고딕 양식의 성을 짓기 시작한 것이 체스키 크롬로프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는 바, 그 이후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건물들이 일부 추가 되었으나 18세기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거의 없다고 함.

○ 중세 마을의 특징이 가장 잘 살아 있는 곳으로 평가 받고 있어 우리나라의 안동 하회마을과 같은 경우임. 13세기 세워진 체스키 크롬로프 성은 프라하 성에 이어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성으로 16세기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개축하면서 둥근 지붕의 탑과 회랑 등이 추가 되었음.

○ 성 안에는 영주가 살던 궁전과 예배당, 조폐소, 바로크식 극장과 정원이 재현되어 있어 중세 귀족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으며 구시가의 중심지는 중세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스보르노스티 광장으로 주변에 후기 고딕 양식의 성비투스 성당 등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이 즐비함.

○ 체스키 크롬로프는 다른 중세 도시들처럼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지만 이 좁은 길은 아기자기한 수공예품을 파는 상점과 카페가 가득해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음. 또한 해마다 6월이면 축제가 열리는데, 마을 사람들 절반 이상이 르네상스 시대의 옷을 입고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체스키 크롬로프성에서는 바로크 시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회나 18세기 귀족들의 가면무도회가 열리고 있음.

3) 프라하성

○ 체코를 대표하는 국가적 상징물이자,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거대한 성임. 프라하 구시가지의 블타바강(江) 맞은편 언덕에 자리잡고 있으며 왕궁뿐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이 정교한 조각과 높이 솟은 첨탑, 화려하고 다채로운 장식으로 꾸며져 있어 유럽에서도 중요한 역사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4) 성비트 대성당



○ 프라하성 중앙에 위치하며 1344년 카를 4세 때 착공하여 1929년에 완공되었는데 정문 바로 위를 장식한 지름 10.5m의 '장미의 창'이 인상적이며 성당 안쪽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법의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되었는데 알폰스 무하(Alfons Mucha)가 제작한 아르누보 양식의 작품이 유명함.

5) 호국의 현장 - 황금소로

○ 프라하의 대표적인 명소 가운데 하나로 원래는 프라하성(城)을 지키는 병사들의 막사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나, 루돌프 2세 때인 16세기 후반 연금술사와 금은 세공사들이 살면서 황금소로라고 불리어졌음.

○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프라하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하면서 이 골목 역시 프라하를 찾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찾는 명소가 되었음.

IV. 연수를 마치며

○ 최근 동유럽국가들은 비제그라드그룹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음. 그 중에서도 EU가입을 계기로 유럽진출의 새로운 베이스캠프로 떠오르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물론 중국, 일본 등의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어 동유럽의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비교와 벤치마킹은 정책수립시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었음.

○ 먼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동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장의 방문을 통해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일부 국가들에 있어서는 국내 진출환경만 개선된다면 진입장벽은 타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라는 것과 신재생에너지, 특히 바이오매스 발전소 설비와 운영관련 진출을 검토해볼 필요가 높다고 하는 것임.

○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반대와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과 쓰레기 소각을 통한 발전의 경우 부산물을 수거하는데 상당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음.

○ 우노시티의 방문을 통해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유치 등으로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화의 방안을 엿볼 수 있었으며 신도시 조성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는 것도 좋은 기회였음. 그러나 국제기구유치 등에 있어 국제기구유치에 따른 파급효과와 영향 등이 정확하게 인지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였음. 특히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한다면 국제행사에 대해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정책성 등을 계량화하여 엄정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동유럽 연수단의 가장 큰 성과라면 세

계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사례연구였다고 할 것임. 즉, 동유럽은 한국과 국토면적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유수도 비슷하지만 연 2천만명 내외의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어 관광으로 인한 이익창출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의 세계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사례는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임.

○ 그 중에서도 동유럽 문화의 특성인 예술성은 세계문화관광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임.

○ 가령, 오스트리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음악일만큼 모차르트, 요한스트라우스, 베토벤, 슈베르트 등의 유명한 음악가들의 유산을 관광상품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음. 잘쯔부르크와 빈, 그리고 프라하는 영화 속 명소를 가지고 관광을 특성화시켰으며 여기에 미술사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역사성을 잘 표현해내고 있기에 이를 우리의 세계문화유산 상품화에 벤치마킹 함으로써 지역의 관광기반 시설 개발을 통한 이익창출보다는 세계문화유산의 자원성을 바탕으로 관광기반시설을 갖추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국가 또는 지역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정책 과제로 삼을 만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문화유산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화된 관광상품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